

칼럼



해외건설 5,000억 달러 수주 및 건설의 날 기념사

사랑하는 전국 200만 건설 가족 여러분!
오늘 건설의 날을 맞아 해외 진출 반세기 만인 올해, 해외 수주 5,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역사적 쾌거를 이룬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외건설 5,000억 달러 달성’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선물입니다. 땀과 눈물, 열정과 도전으로 오늘의 역사를 일궈낸 건설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은 6·25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 위에 오늘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산업과 물류의 대동맥이었고, 황무지 위에 세워진 제철소와 발전소는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고속철도와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은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계가 인정하는 녹색 성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건설산업은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열사의 땅 중동에서 흘린 건설인들의 땀에 힘입어 1970년대 몰아친 석유파동의 혹독한 시련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이후 해외 수주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참으로 많은 고통과 송고한 희생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페루에서 헬기 사고로 이제 막 남미에 진출하려는 개척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고귀한 희생에 대해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건설인 여러분!

해외건설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열자면,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시대를 앞서가는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의 융복합 시대를 맞아서 무엇보다도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서울 교통 시스템을 콜롬비아에 수출한 것처럼 정보통신과 첨단 기술, 독창적 문화가 어우러지는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건설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니, 47년 전 건설회사 신입사원 면접에서 “건설은 창조입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1967년, 처음 해외 현장에 갔을 때 “다른 나라는 전쟁을 하려고 무기를 들고 여기에 왔지만, 대한민국은 평화를 건설하려고 중장비를 이끌고 왔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며, 세계로 뻗어가는 해외 건설 현장은 패기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기회에 도전해서 지구촌 공생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성숙한 세계 국가 대한민국의 개척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외건설 5,000억 달러 달성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오늘을 만든 선배 건설인들, 미래를 개척해 나갈 젊은 건설인들과 함께 우리 건설산업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합니다.

2012년 7월 2일
대통령 이명박